

謹婦歌



[해제]

<근부가>는 『강륜보감(綱倫寶鑑)』 권지일(卷之一)에 수록된 국한문 혼용체의 가사이다. 이 가사의 정확한 창작시기와 작자는 알 수 없다. 다만 『강륜보감(綱倫寶鑑)』의 첫 장에 “全南 羅州郡 細枝面 松堤里 春儒生 金福千 留巖 辛丑年 七月十五日”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강륜보감』이라는 책은 신축년에 전라도 나주군에서 유생 김복천이란 사람이 제작 혹은 소장했던 책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 작품은 당대 여성들이 꼭 해야만 했던 일과 삼가야 할 항목들에 대해 노래한 전형적인 계녀 가류 가사이다.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가장 기본적인 노동이라 할 수 있는 길쌈과 봉제사를 언급한 뒤 ‘출타 금지, 송사 금지, 정사 참여 금지, 재주가 있어도 드러내지 말고 군자를 보좌할 것’ 등을 이야기한다. 또한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각자 자신의 집안만을 생각하게 되어 자칫 우애를 상할 수 있으니 집안을 바로 다스리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노래하며 작품을 마무리 하였다.

[원문]

더부러 弗友하라 去取之義가 重重하다

五. 謹婦歌

조심만타 조심만아 婦人行實 조심만아
 婦人은 家內에서 饋食을 專主하며
 紡績織紝 하난法을 일삼을 따름이니
 出他하야 暫時라도 交游흥이 업시하며
 婚姻家에 來往말며 信命흥과 贈遺흥이
 慫慙할 따름이니 門戶을 잡아서
 사람으로 因하야 曲直을 争訟말며
 사람으로 因하야 進請하야 接迎말며
 사람으로 因하야 代子하야 求官말며
 사람으로 因하야 夫訟에 屈代말며
 나라에 正事흥에 參預하지 말것이며
 家蠱을 專主치말며 聰明하야 才智흥에
 知識이 古今을達해도 正當이 君子을輔佐하야
 그不足한디을 勸하라 牝鷄晨鳴 하야서
 灾禍가 이러나니 灾禍됨이 업게흥은
 預政하며 幹蠱흥을 아니흥이 第一이니
 良策을 모르릿스 謹婦歌 불너보고
 家道昌盛 우리집안 灾禍을 免해보새
 人民이 잇는後에 夫婦가 잇시며
 夫婦가 잇신後에 父子가 잇시며
 父子가 잇신후에 兄弟가 잇나니
 이난 三親이요 九族에 이르러도
 三親에 根本하엿나니 人倫에 重흥이라
 이런故로 賢婦난 三親과 九族을

엇지厚敦치 아니할가 一家에 兄弟난
分形이나 連一氣니 兄弟가 어려실제
父母품안에 잇슬씩난 左提하며 右挈하며
前襟하며 後裾하야 飲食이면 同案하며
衣服이면 傳服하며 學習이면 連業하며
遊行이면 共方하니 비록悖亂人이 잇서도
能이 相愛하더니 及其莊年 되야서
그妻을 各各두며 子息을 各各두자
偏心이 漸起하야 비록篤厚人이 잇서도
能이 少衰하나니 相愛之情 업서진다
姒娣들은 兄弟의게 比하면 踈薄하니
踈薄人으로 하여곰 親厚한 兄弟間의
恩義을 節量하면 方底에 圓蓋되야
반다시 不습하리니 오즉 諸婦덜은
友悌흥이 篤厚하야 至極흥이 如一하면
成德으로 家和되야 傍人이 法뵈나니
齊家에 要目이라 賢婦난 成德코저

六.婦德歌

[현대역]

더불어 벗으로 삼지 말라 거취지의(去取之義)34가 매우 중하다

五. 근부가(謹婦歌)

조심 많다 조심 많아 부인행실(婦人行實) 조심 많아
 부인(婦人)은 가내(家內)에서 궤식(饋食)1을 전주(專主)2하며
 방적(紡績)3 직임(織紝)4하는 법(法)을 일상을 따름이니
 출타(出他)하여 잠시(暫時)라도 교유(交游)5함이 없으며
 혼인가(婚姻家)에 왕래(來往)말며 신명(信命)함과 증유(贈遺)6함이
 은근(慇懃)할 따름이니 문호(門戶)를 잡아서
 사람으로 인하여 곡직(曲直)7을 쟁송(爭訟)8말며
 사람으로 인하여 진청(進請)9하여 접영(接迎)10말며
 사람으로 인하여 자식을 대신하여 벼슬을 구하지 말며
 사람으로 인하여 부송(夫訟)에 굴대(屈代)말며
 나라에 정사(正事)함에 참여(參預)11 하지 말 것이며
 집안일을 전주(專主)치 말며 총명(聰明)하여 재지(才智)12함에
 지식(知識)이 고금(古今)을 통달해도 정당(正當)이 군자(君子)를 보좌(輔佐)하여
 그 부족(不足) 한 곳을 권(勸)하라 빈계신명(牝鷄晨鳴)13 하여서
 재화(災禍)14가 일어나니 재화(災禍)됨이 없게 함은
 예정(預政)하며 간고(幹蠱)15함을 아니함이 제일(第一)이니
 양책(良策)16을 모르리까 근부가(謹婦歌)17 불러 보고
 가도창성(家道昌盛)18 우리 집안 재화(災禍)를 면해보세
 인민(人民)19이 있는 후에 부부(夫婦)가 있으며
 부부(夫婦)가 있는 후에 부자(父子)가 있으며
 부자(父子)가 있는 후에 형제(兄弟)가 있나니
 이는 삼친(三親)20이요 구족(九族)21에 이르러도
 삼친(三親)에 근본(根本) 하였으니 인륜(人倫)에 중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현부(賢婦)는 삼친(三親)과 구족(九族)
 어찌 후돈(厚敦)22치 아니할까 일가(一家)에 형제(兄弟)는
 나누어져 있으나 일기(一氣)로 이어져 있으니 형제(兄弟)가 어렸을 때
 부모(父母) 품안에 있을 때는 좌제(左提)하며 우설(右挈)하며23
 전금(前襟)하며 후거(後裾)하여 음식(飲食)이면 동안(同案)하며
 의복(衣服)이면 전복(傳服)24하며 학습(學習)이면 연업(連業)하며
 여행(遊行)이면 공방(共方)하니 비록 패란인(悖亂人)이 있어도
 능히 서로 사랑하더니 그 왕성한 해에 미치게 되어서
 그 아내를 각각 두며 자식을 각각 두자
 편심(偏心)25이 점점 일어나 비록 독후인(篤厚人)26이 있어도
 능히 소쇠(少衰)하나니 서로 사랑하는 정이 없어진다

사제(娣娣)들은 형제(兄弟)에게 비하면 소박(踈薄)하니
소박인(踈薄人)으로 하여금 친후(親厚)한 형제간(兄弟間)의
은의(恩義)27를 절량(節量)하면 방저(方底)에 원개(圓蓋)되어28
반드시 불합(不洽)하리니 오직 제부(諸婦)들은
우제(友悌)29함이 독후(篤厚)하여 지극(至極)함이 여일(如一)30하면
성덕(成德)31으로 집안이 화목하게 되어 방인(傍人)32이 본받나니
제가(齊家)33에 요목(要目)34이라 현부(賢婦)는 성덕(成德)하오

육(六). 부덕가(婦德歌)

[각주]

- 1) 궤식(饋食) : 제사 때 차려놓은 익은 음식, 또는 제수(祭需)를 제상에 차려놓음.
- 2) 전주(專主) :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나 여기에서는 혼자서 담당한다는 뜻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음.
- 3) 방적(紡績) : 길쌈.
- 4) 직임(織紵) : 길쌈.
- 5) 교유(交游) : 벗을 사귀.
- 34) 거취지의(去取之義) : 남자와 여자가 버리고 취해야 하는 도리.
- 6) 증유(贈遺) : 증여(贈與).
- 7) 곡직(曲直) : 굽음과 곧음이라는 뜻으로, 사리의 옳고 그름을 이르는 말.
- 8) 쟁송(爭訟) : 서로 다투며 송사(訟事)를 일으킴.
- 9) 진청(進請) : 나아가 청함.
- 10) 접영(接迎) : 영접(迎接).
- 11) 참여(參預) : 참여.
- 12) 재지(才智) : 재주와 지혜.
- 13) 빈계신명(牝鷄晨鳴) : 암탉이 새벽을 알린다는 뜻으로 여성이 정사에 참여하고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유.
- 14) 재화(災禍) : 재앙.
- 15) 간고(幹蠱) : 일을 담당함.
- 16) 양책(良策) : 좋은 계책.
- 17) 근부가(謹婦歌) : 여자, 아내들이 금해야 하는 사항들을 가사로 만든 노래.
- 18) 가도창성(家道昌盛) : 집안이 번창함.
- 19) 인민(人民) : 백성.
- 20) 삼친(三親) : 세 가지의 가장 친한 사이로 부자(父子), 부부(夫婦), 형제(兄弟)를 일컫음.
- 21) 구족(九族) : 고조·증조·조부·부친·자기·아들·손자·증손·현손까지의 동종(同宗) 친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자기를 본위로 직계친은 위로 4대 고조, 아래로 4대 현손에 이르기까지이며, 방계친은 고조의 4대손이 되는 형제·종형제·재종형제·삼종형제를 포함함.
- 22) 후돈(厚敦) : 도탑다.
- 23) 좌제(左提)하며 우설(右挈)하며 : 좌제우설(左提右挈).왼쪽으로 끌고, 오른쪽으로 이끈다는 뜻으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이르는 말.
- 24) 전복(傳服) : 옷을 차례로 돌려가며 입는 것.
- 25) 편심(偏心) :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
- 26) 독후인(篤厚人) : 정이 도타운 사람.
- 27) 은의(恩義) : 은혜(恩惠)와 덕의, 값아야 할 의리(義理) 있는 은혜(恩惠)
- 28) 방저(方底)에 원개(圓蓋)되어 : 방저원개(方底圓蓋).바닥이 네모난 그릇에 둥근 뚜껑이라는 뜻으로, 일이 어긋나고 맞지 않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
- 29) 우제(友悌) : 벗을 공경함.
- 30) 여일(如一) : 한결같이

- 31) 성덕(成德) : 덕을 닦아 일가(一家)를 이룸.
- 32) 방인(傍人) : 곁의 사람.
- 33) 제가(齊家) : 집안을 바로 다스리는 일.
- 34) 요목(要目) : 중요한 조목.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